

Since
1906*

대한제국 황실의 꿈- '숙명여자대학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묘역 효창공원과 숙명여자대학교

2020
SPECIAL
EDITION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인재가
성장하는 곳

그곳이 바로
숙명입니다.

1938년, 일제는 학교에서 조선어를 금지시켰다.
온 겨레가 '숙명여고보'의 여성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기금을 모았으나
중일전쟁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비용에 가로막혀 있었다.

'숙명'은 어머니 순현황귀비께서
교육입국(教育立國)의 의지로 세운 학교.
어머니의 뜻은 자기 뜻이요 지금 대한 겨레의 뜻이었다.
영친왕은 임야 약 50만m²를 기부하고,
그래도 어려움을 겪자 다시 명을 내렸다.

"효창원(孝昌園) 동쪽 땅에
'숙명여자전문학교'를 세우게 하라."



| | |
|----|---------------|
| 04 | History of 숙명 |
| 06 | 한눈에 보는 숙명 |
| 08 | 숙명 News |
| 12 | 숙명의 별 |
| 14 | 세상을 여는 숙명人 |
| 20 | 캠퍼스 투어 |
| 24 | 숙명 SNS |
| 26 | 눈송이의 모든 것 |
| 28 | 맛있는 숙명 |

숙명
2020
SPECIAL
EDITION

발행인

강정애

발행처

숙명여자대학교 대외협력본부

커뮤니케이션팀

주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홈페이지

www.sookmyung.ac.kr



숙명이 걸어온 길, 숙명이 걸어갈 길

History

우리대학은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 서비스의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르네상스 숙명'을 통해 지덕체를 갖춘 미래형 글로벌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핵심, 융합, 공유, 글로벌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구성원들의 자기주도적 성장 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글로벌 시민 역량을 함양시키고 있는 숙명의 과거·현재·미래를 만나 본다.

1906

대한제국 황실이 세운
최초의 민족여성사학

명신여학교 설립

순현황귀비는 우리나라의 개화와 발전이 여성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한성부 수진방 박동에 위치한 용동궁 480평 대지, 75칸의 한옥에 5명의 양반가 딸들을 첫 학생으로 받아들여 명신여학교(明新女學校)를 설립했다. 외국 자본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우리 힘으로 일으킨 민족여성교육기관의 효시다.

1948

대학 승격

숙명여자대학으로 승격

문학부와 이학부에
6개 학과 설치



1951

피난지 부산에
임시 교사 설치

종합대학교
시대의 개막

종합대학교로 승격하면서 문리과대학, 정경대학, 음악대학, 악학대학 4개 단과대학 및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이 설치됐다. 현재 캠퍼스의 기본적인 모습이 조성된 시기 이기도 하다.



1938

전문학교 설립
청파동 시대의 개막

1951

피난지 부산에
임시 교사 설치

1981

6·25 전쟁으로 피난 중
부산 동대신동에 임시 교사 신축

1981

새로운
전진을 위한 준비

1991

제2창학캠퍼스 부지 확보

1995

숙명 제2창학,
혁신과 도약

제2창학 선언

숙명 제2창학 발기인대회를 통해 창학 100주년인 2006년을 향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창학을 선언했다.



2006

제2창학캠퍼스 완공
숙명 창학 100주년



2010

국내 최초 여자대학 1호
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

2020~

숙명 창학 114주년,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

창학 114주년

'미래의 가치를 품은 글로벌 숙명'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교육과 상생, 연구에 투자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학생이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장하는 대학을 만들 것이다.



1981
최초의 동문 총장 취임

1991
제2창학캠퍼스 부지 확보

1981

새로운
전진을 위한 준비

1995

숙명 제2창학,
혁신과 도약

제2창학 선언

숙명 제2창학 발기인대회를 통해 창학 100주년인 2006년을 향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2창학을 선언했다.

1997
대학종합평가
최우수대학으로 선정

2001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으로 선정(총 3년)

2005
리더십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총 2회)

2006

제2창학캠퍼스 완공
숙명 창학 100주년
창학 100주년을 맞아 '백년의 숙명, 천년의 빛'이라는 구호를 걸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서는 기념일 100일 전부터 전국 각지의 동문·재학생·교직원 등의 손을 거쳐 전달된 기념성화가 점화됐고, 100주년 기념주 '숙명백년'과 기념우표도 발행됐다.

2010

국내 최초 여자대학 1호
학생군사교육단(ROTC) 창설

2006

숙명 창학 100주년,
사회 수요에 맞춘 선도적 교육개혁

2014

여자대학 최초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

2015

공과대학 설치
여대 유일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에 선정

2016

여자대학 최초 기업가센터
주관대학으로 선정

2017
진로·취업 지원 선도대학
서울 권역 유일 선정

2018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 특별상 수상

2019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선정(11년 연속)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종합형 선정





한눈에 보는 숙명

2019년 정보공시 기준



성과

- 2년 연속 서울권 4년제 여대 취업률 1위
-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종합형 선정
-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 사업 선정
- 캠퍼스 CEO 육성사업 4년 연속 선정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11년 연속 선정
- 『중앙일보』 2019 대학평가 과학기술교수당 기술이전 수입액 3위
- 『중앙일보』 2019 대학평가 교육중심대학 2위
- 『한국경제』 2019 취업·창업 대학 평가 종합순위 여대 1위
- 대학일자센터 성과평가 3년 연속 우수
- 2018년도 우수학군단 선정

SOOKMYUNG News

2년 연속 ‘서울권 4년제 여자대학 취업률 1위’ 달성

우리대학 경력개발처는 교육부가 지난 1월 10일 자로 대학알리미(대학정보공시)를 통해 공시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2018. 12. 31. 기준)’에서 우리대학이 취업률 64.4%를 기록해 서울권 여대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권 여자대학 취업률

| 학교명 | 취업률(%) | 순위 |
|---------|--------|----|
| 숙명여자대학교 | 64.4 | 1 |
| 동덕여자대학교 | 62.4 | 2 |
| 이화여자대학교 | 62.1 | 3 |
| 덕성여자대학교 | 62.0 | 4 |
| 성신여자대학교 | 59.6 | 5 |
| 서울여자대학교 | 58.8 | 6 |

학과별로 살펴보면 약학대학 96.3%, 앙트리프리너십전공 85.7%, 독일언어·문화학과 81%, 공예과 80%, 글로벌서비스학부 80% 등으로 전통적인 약학계열 강세와 함께 일반적으로 취업이 어렵다는 어문계열 및 예체능계열, 사회과학계열 학과 등도 높은 취업률을 보였으며 그 외 문화관광학부, 영어영문학부, 식품영양학과, 미디어학부, 홍보광고학과, 회화과, 경영학부 등도 7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청년취업이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전년 대비 1.4%가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경력개발처는 취업률 상승의 비결에 대해 다양한 진로와 취·창업 프로그램 및 정부 사업 참여로 인한 효과를 꼽았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5년 고용노동부의 대학일자리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이후 3년 연속 우수대학 평가를 받으며 재학생 및 지역청년들을 대상으로 원스톱 취업서



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학기 중에는 다양한 취업프로그램과 모의시험 등 취업스킬 프로그램은 물론, 사회 각계에 진출한 현직 동문과 연결해 함께하는 취업 대비반과 특강 등이 크게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방학 중에는 NCS 직무역량스쿨, 글로벌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일주일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집중적인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017년도부터는 학생경력관리시스템 스노웨이(SNOWAY)를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경력 및 역량관리를 포털시스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로탐색과 취업대비가 가능하도록 시스템화했다. 다양한 교과·비교과 활동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진로 및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내가 디자인하는 나의 수업’ 자기주도 진로설계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우리대학은 다양한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에서도 성과평가 A등급을 놓치지 않고 있다. 재학생 직무체험, 서울시정 인턴십, 산학협동교육, 기업실무 인턴십, 대학-강소기업 연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장단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기본역량은 물론 실무능력 또한 뛰어난 여성인재 육성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 기업체 CEO와 전문가, 교수, 동문 등을 멘토로 초빙해 특강과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학생들이 사회진출의 룰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돋는 멘토링 프로그램 역시 다른 대학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최근 고용노동부와 동아일보 등이 함께 실시해 발표한 2019 청년드림대학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여대로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우수대학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옥경영 경력개발처장은 “2020년 경력개발처 내에 재학생들의 취·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재개발센터를 출범시켰다”며 “입학 초기 학생의 직무·적성을 진단하고,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원하는 사회진출 분야로의 역량을 쌓아 사회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진로·취업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캠퍼스타운 사업 종합형 참여대학으로 선정

우리대학이 캠퍼스타운사업 공모에서 종합형 대학으로 선정돼 오는 2023년까지 최대 10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됐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대학과 지역사회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대학은 지난 2016년 단위사업형 참여대학으로 선정돼 3년간 용문전통시장 활성화, 청년창업 활성화, 용산문화 특성화 등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바람직한 산·학·관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종합형은 단위사업보다 지원규모가 대폭 늘어나 당장 2020년부터 최대 20억원을 지원받으며, 이를 통해



청년창업을 중심으로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의 종합적인 협력 증진을 꾀할 예정이다. 종합형에 선정된 7개 대학은 우리대학을 포함해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숭실대, 연세대, 인덕대 등이다.

강경애 총장은 “우리대학은 용산구 유일의 종합대학으로서 지난 3년간 캠퍼스타운 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모범적인 프로그램들을 발굴 및 추진해 왔다”며 “이러한 성과와 축적된 역량을 바탕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캠퍼스 CEO 육성사업’ 4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

우리대학이 우수한 청년창업가와 미래 CEO를 키우기 위한 ‘캠퍼스 CEO 육성사업’에 4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대학 내 CEO 양성과정을 운영해 예비 창업자 육성과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대학 인력의 도전 의식과 사업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대학은 아이템 발굴부터 내·외부 전문가에게 평가받는 실전 중심의 캠퍼스 CEO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함으로써 창업교과 특강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동시에 서울 지역 대학들과 서울시 및 협력 기관과 긴밀히 협동해 학생들의 기업가정신을 고취하고



자 한다. 또한 창업캠프나 대학별 창업경진대회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을 지속하고, 우수 창업팀 발굴을 위한 시제품 제작비 등을 계속 지원해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특히 창업지원단은 본 사업의 일환으로 글로벌 창업 분야에 특화된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강의)를 제작해 우리대학 학생이라면 누구나 시청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에 텁재할 계획이다.

SOOKMYUNG News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개최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이 우리대학을 방문해 리더십의 덕목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우리대학 중앙도서관이 한불협회와 공동 주최해 2019년 3월 6일 교내 백주년기념관 삼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 강연에서 반전 총장은 국제기구의 수장으로서 활동했던 경험담을 소개하면서 젊은이들이 글로벌 이슈에 관심을 갖고 세계무대로 진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건넸다.

UN 사무총장 시절 그 누구보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많이 만났다고 강조한 반전 총장은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청을 꼽았다. 그는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리더라고



하면 강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한 지도자라면 다른 이들의 말을 열심히 듣고 배우는 자세가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반전 총장은 “미래의 리더로 자랄 우리 대학생들은 학점에 얹매이기보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약자를 돋는 일에 앞장섰으면 한다”고도 당부했다.

여대 최초의 학군단, 최고의 학군단으로 명성 유지

우리대학 학군단이 국방부가 실시한 2018년도 우수학군단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육군학생군사학교(학군교) 우수학군단에 선정됐다. 이는 지난 2013, 2015~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대학은 인원수 60명 이하인 중령급 학군단 64개 가운데 종합점수 5위를 차지해 부대 표창을 받았다.

학군교 측에 따르면 우리대학 학군단은 정보·작전, 교육, 인사, 군수 등 모든 분야에서 고루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여대 최초의 학군단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후보생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학금 및 기숙사 지



원 등 실질적인 혜택도 비교적 우수하다는 평가다.

이에 우리대학은 지난 1월 2일 우수학군단에 선정되며 학교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로서 재권 학군단장을 비롯해 군사학 교수와 훈육관 등 지휘관들에게 총장 표창을 수여했다. 강정애 총장은 “구국애족이라는 창학이념에 따라 설립된 우리대학의 학군단인 만큼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는 장교 양성에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 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

우리대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하는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혁신단 사업(이하 여성실험실혁신단 사업)’ 전담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1년까지 여성대학(원)생·연구자의 창업 활성화 및 실험실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 실험실 창업 팀들을 전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실험실창업혁신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대학·출연연을 대상으로 공동연구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시작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한국형 I-Corp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전담보육기관이다.



우리대학은 이번에 이공계 여학생 창업을 집중 육성하는 여성특화형 전담보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돼 2년간 약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여성 대학(원)생과 교원의 실험실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창업교육 및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창업지원단 관계자는 “창업지원단과 산학협력단이 함께 협력해 국내 여성의 기술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목표를 밝혔다.

프라임사업 우수대학 선정

우리대학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사업)’ 종합평가에서 사업 수행 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프라임사업은 학령인구 감소, 청년 실업률 증가, 분야별 인력 미스매치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총 21개 대학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대학은 대형 부문의 유일한 여대로 선정되어 지난 3년간 학생들의 전공 및 진로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학사구조 개편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이번 종합평가에서 우수, 양호, 미흡으로 분류된 3개 등급 중 가



장 높은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는데 성공했다.

우리대학은 미래 유망분야를 고려한 공과대학 전공 신설, 전교적 차원의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구축, 지역사회와의 연계, 인문학 발전계획의 체계적 관리, 수요자 중심 진로 및 취·창업 지원 등과 관련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라임사업 평가단 측은 “사업방향을 확실히 인지하고 분명한 성과와 변화를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



최초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항공작전사령관
강선영 소장
행정학과89졸

2019년 11월 8일 강선영 육군준장은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소장으로 진급해 항공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되는 영예를 얻었다. 항공작전사령부는 육군 헬기 전력을 총괄하는 야전작전사령부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최초 정조종사, 특전사 최초 여장교 강하조장, 특전사 대대 최초 여성 팀장, 최초 항공대대장, 최초 항공단장 등 늘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



최초이기에 더욱 치열했던

강선영 소장은 여군 35기로 1990년에 입관 후 1993년 육군항공 학교에 입교해 회전익 조종사 95기를 1등으로 수료했다. 강선영 소장의 '최초'라는 타이틀은 결국 '최고'를 향한 과정이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최초' 타이틀을 얻었지만, 최초라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죠. 최초는 '우수하다'는 의미보다 '미숙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기에, 그 길을 항상 조심히 걸어왔습니다. 저부터 반듯하게 걸어가야 후배들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다른 이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먼저 걷는다는 것은 외로우면서도 치열한 일이었다. 강 소장은 자기 자신과의 끝없는 경쟁을 이어나갔다. 25주간 조종사 교육을 받으면서도 매일 수첩에 일기를 쓰고, 일과에 대한 만족도를 스스로 평가했다. 만족스러운 날은 '파란색', 보통인 날은 '노란색', 만족스럽지 못한 날은 '빨간색'으

로 표시했다. 처음에는 '빨간색'이 많았지만 점차 '파란색'이 많아졌다.

이러한 노력 끝에 소령 때는 최초 여군 지휘관으로 헬기 중대장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군 지휘관을 인정하지 않던 시기였다. 강 소장은 애지에서 3박 4일간 부하들과 함께 훈련하며 다양한 항공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다. 소장과 함께 훈련을 하고 난 부하들은 그를 여성이 아닌 상관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마음이 된 부대는 23개 부대 중 전투력 측정 최우수 부대가 됐고, 육군항공 사격대회에서도 최우수 부대로 선발돼 합참의장 부대표창을 받기도 했다.

리더의 가치를 일깨워준 숙명

특전사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모든 병사와 간부들이 지상 훈련(체력 훈련 및 막타워 등)에 이어 낙하산을 메고 하늘에서 강하하는 공수 교육을 4회 실시해야 비로소 특전인의 상징인 검은 베레모를 착용할 자격이 주어진다. 다음으로 더 높은 수준의 강하 조장(Jump Master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이후에도 30여 회 이상 강하를 하게 됐다. 이 무렵 그는 수동적인 비행이 아닌 능동적인 비행이 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날고 싶은 꿈이 생긴 이후, 항공병과에 지원해 헬기 조종사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렇듯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가는 강 소장. 그만의 당찬 결단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게 아닐까.

그렇다면 소장의 학창시절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숙명여대 행정학과 3회 졸업생인 그는 대학 때부터 리더의 자질을 갖추기 시작했다. 2학년 때는 과대표, 3학년 때는 학회장을 맡아 일하며 숙명을 이끌었다. 동시에 1987년 6·10 민주화운동과 6·29 선언 등을 통해 민주주의와 국가의 의미를 고민하며 호국(護國)의 사명을 가슴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됐다.

"숙명여대는 저에게 소중한 배움의 터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행정학을 전공하면서 조직과 공공성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고, 과대표와 학회장 직책을 통해 리더십을 깨우치게 됐습니다. 저는 1989년 졸업 이후에도 '정숙·현명·정대'라는 교훈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더불어 선후배들과 함께하는 청청해 모임은 지금도 휴식 같은 존재로 남아 있죠."

강선영 소장은 본인이 그랬듯 후배들에게도 숙명여대가 인생의 선물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직이란 것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대로만 구분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사회적 편견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문제지만, 이 같은 편견을 우리 스스로만 들지 말아야 합니다. 편견에 갇히는 순간 스스로 능력의 한계치를 만들고 그 이상으로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자신의 직책에서 맡은 임무를 경중을 떠나 최선을 다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후배들도 주춧돌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건 바로 창업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 주임
박채린
앙트러프리너십전공19졸

창업 하면 누군가는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버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박채린 동문에게 창업은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라 가치를 더하고 추구하는 행위다. 대학 다닐 때 창업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도 지금의 자신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그를 만나 본다.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을 돋다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자 지원은 물론 창업자들의 글로벌 진출과 청년들의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박채린 동문은 창업진흥원 글로벌사업부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맡고 있다.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란 해외 진출 계획이 있는 창업자들을 모집해서 해당 국가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창업 아이템 현지화를 지원하는 일을 뜻한다. 2019년에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을 선별해서 창업 아이템에 관한 현지 시장의 수요를 테스트하고 현지 기관과 연결해 4~6주 정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박채린 동문이 창업진흥원에서 일하게 된 데는 학교 다닐 때 앙트러프리너십을 전공했던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앙트러프리너십을 전공하면서 학부 때 직접 창업을 해 봤기에 창업과 창업을 돋는 일이 얼마나 흥미롭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됐다고 할까.

창업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다
2017년 재학 당시 박채린 동문은 비즈니스 스타트업 수업을 통해 모로코에서만 생산되는 아르간 오일을 공정무역으로 들여와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 및 판매하는 사업을 했다. “제가 전공한 앙트러프리너십은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해 창업에 도전하도록 하는 수업 과정이 잘 갖춰져 있어요. 저는 여러 수업 중에서도 비즈니스 스타트업 수업을 들었어요. 그 수업을 같이 듣는 모로코 출신의 교환학생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모

로코에서 나는 아르간 오일은 1리터를 추출하는 데 20시간이 들 정도로 생산 과정이 까다롭지만 모로코의 많은 여성이 사설상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아르간 오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자 아르간 오일을 공정무역으로 수입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하는 데 박채린 동문의 생각이 미쳤다. 시장조사를 해 보니 아르간 오일은 이미 미용 시장에서 헤어 에센스로 많이 팔리고 있었지만 함유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아르간 오일 함유율은 높이고 가격대는 낮춘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기로 생각을 굳혔다.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기까지는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했다. 하지만 비즈니스 스타트업 수업을 통해 진행한 사업이었기에 각 과정마다 학교의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창업을 할 수 있었던 건 학교라는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창업 아이템 발굴 및 구체화, 자금 조달, 제품 개발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학교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소개받을 수 있었거든요.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창업으로 이루어 낼 수 있었어요. 창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단독 행위가 아니라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공동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맛보길

박채린 동문이 재학 당시 창업을 경험하고 지금은 창업자들을 지원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창업을 하는 데는 실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제는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내일은 나 아닌 누군가가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구체화하는 걸 미루어서는 안 된다. 자신감 또한 창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자질이다.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창업 아이템에 그 누구보다 자신감을 갖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재학생들이라면 학교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서 용기를 갖고 창업에 뛰어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박채린 동문의 진심 어린 조언이다.

“졸업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대학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재미있었어요. 꼭 공부만이 아니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기회를 많이 누렸거든요. 대학 다닐 때 창업을 통해 제가 꿈꾸는 가치를 실현한 것이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창업에 몸담고 있는 게 아닌 만큼 창업 경험이 일종의 실패였다고 여길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창업을 경험했기에 창업을 지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경험으로 인해 창업자들에게 지금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하고요.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다양한 경험과 실패를 하면서 자신과 맞는 길을 새롭게 발견해 나갔으면 합니다.”



배다영 학생(왼쪽)과 그의 친언니(오른쪽)

일상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다

유튜버
배다영 학생

시각·영상디자인과17

SNS를 넘어 유튜브가 대세가 된 요즘 자매의 일상을 공감 가득하게 선보이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있다. 바로 배다영 학생과 그의 친언니가 함께 운영하는 '밸리블리' 채널이다. 배다영 학생의 뛰어난 영상편집 실력과 언니의 기획력이 합쳐져 만들 어진 밸리블리 채널에 올라온 영상 중에는 조회 수가 18만 뷰에 이르는 것도 있다. 자신의 일상을 특별한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는 배다영 학생의 촬영 비하인드 이야기를 들어 본다.

자기소개와 유튜브 채널 밸리블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 콘텐츠 채널 밸리블리를 운영하고 있는 배다영입니다. 밸리블리는 언니 '윗배'와 동생 '아랫배'가 함께 만들어 가고 있어요. 밸리블리는 저희 자매 일상 콘텐츠, 언니 브이로그, 제 브이로그, 반려견 루비 콘텐츠 이렇게 네 가지 위주의 콘텐츠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밸리블리'란 이름이 재미있네요.

저희 자매가 배씨라서 배를 뜻하는 영어단어 '밸리(belly)'와 함께 사랑스럽다를 뜻하는 '러블리(loveley)'에서 'vely'를 따서 '밸리블리'가 되었어요. 저희가 사랑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웃음). 사실 처음에 채널 이름을 뭘로 할지 많이 고민했는데 계속 그

러다가는 아예 시작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문득 생각나는 걸로 결정하자!"고 정한 다음에 나온 이름이 바로 밸리블리예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저희 자매가 네 살 터울인데 어렸을 때부터 서로 코드가 잘 맞았고 다른 자매들보다 사이좋게 많이 놀러 다니는 편이거든요. 같이 놀 때면 엉뚱하면서도 상상력이 넘치는 저희의 모습에 남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종의 일기 느낌으로 저희 자매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만들면서 가장 재미를 느꼈던 콘텐츠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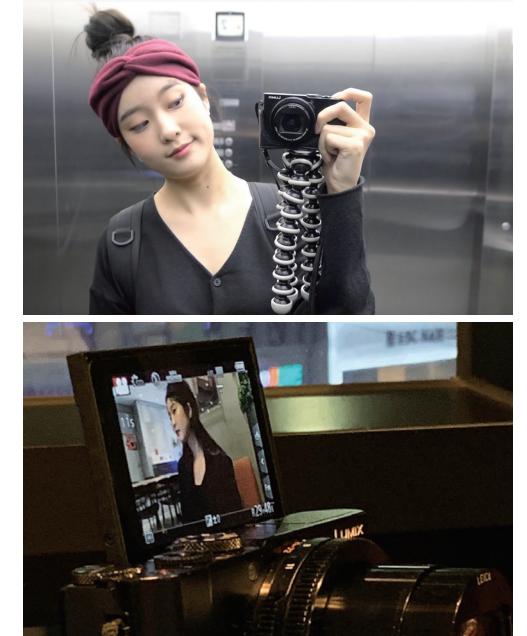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X 101>을 주제 삼아 촬영한 기획 콘텐츠가 가장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챙겨 보는 언니가 먼저 제안한 콘텐츠였는데요, 방송을 시청한 언니와 챙겨 보지 않은 제가 생각하는 이상형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촬영했습니다. 일상 브이로그가 아닌 첫 기획 콘텐츠였고, <프로듀스 X 101> 시청자 분들과 소통도 많이 할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체육부에서 그 영상을 보고 컬래버레이션 영상 제작을 제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기념해 '기억하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밸리블리가 알려주는 8월 14일 기림의 날, 기억하는 법' 영상을 '누미아파'와 컬래버레이션으로 제작하게 됐어요.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죠.

유튜브를 찍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는 언니와 함께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가끔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기숙사에 살고 있어서 언니랑 떨어져 살고 있거든요. 자매 채널인데 같이 촬영하기가 쉽지 않아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아무래도 혼자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언니와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필요한 점도 어려운 점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요. 이를테면 우리대학 기숙사 소개 영상이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학 기숙사 소개 영상은 있는데 숙명여대 것은 없어서 올렸어요. 밸리블리 채널 조회 수가 급상승한 계기가 된 영상이죠. 새 학기에 맞춰 올렸고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걸 해소해 주었기에 결과가 잘 나온 것 같아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부지런해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은 촬영과 편집을 모두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외주를 맡겨도 좋지만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니까 결과물이 원하는 대로 잘 나오더라고요. 콘텐츠가 일상 브이로그인 만큼 자주 카메라를 들고 여러 컷을 촬영해 두는 부지런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한 '꿀팁'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한 영상을 꾸준히 올리되 처음부터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처음부터 반응이 있기는 정말 힘들고, 너무 기대하면 실망도 큰 법이니까요. 저희도 처음에 조회 수가 50뷰 정도로 나와도 '50명이나 우리 영상을 봐 줬어!'라고 생각했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계속 채널을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획을 거창하게 잡으면 그만큼 기대가 커지고 부담도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취미로 생각하며 부담 갖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합니다. 일기를 쓰듯 계속 저희 일상을 영상으로 기록해 나갈 생각입니다.

반짝반짝 눈송이 두근두근 캠퍼스

청파동 언덕 위에 자리잡은 우리대학 캠퍼스는 생기발랄 눈송이들의 활기찬 대학 생활이 펼쳐지는 곳이다. 숙명을 대표하는 건물로 8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현관부터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중앙도서관과 첨단 복합시설을 갖춘 프라임관까지 오래된 역사와 최신 기술이 공존하는 우리대학 캠퍼스를 두루두루 살펴보자.



- 1. 순현관(본관)
- 2. 수련교수회관
- 3. 행파교수회관
- 4. 진리관
- 5. 명신관
- 6. 새힘관
- 7. 행정관
- 8. 학생회관
- 9. 창업보육센터
- 10. 평화문
- 11. 명재관(기숙사)
- 12. 지혜문(서문)
- 13. 르네상스플라자
- 14. 음악대학
- 15. 사회교육관
- 16. 약학대학
- 17. 미술대학
- 18. 백주년기념관
- 19. 자유문
- 20. 한국음식연구원
- 21. 중앙도서관
- 22. 이과대학(과학관)
- 23. 다목적관
- 24. 백로국제관
- 25. 매화국제관
- 26. 숙명인재관
- 27. 새빛관
- 28. 구국관
- 29. 국제4관
- 30. 국제5관
- 31. 국제6관
- 32. 국제7관
- 33. 프라임관
- 34. 눈꽃광장홀



순현관

우리대학 제1캠퍼스 정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보이는 웅장한 건물이 바로 순현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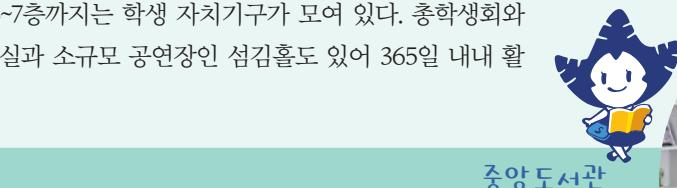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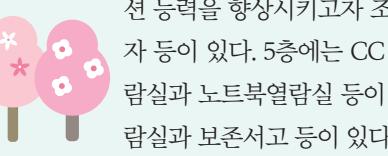
1940년 9월 신축됐고 1977년 제2차 신축공사를 거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문과대학, 생활과학대학, 경상대학 등의 사무실과 강의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원래 명칭은 '본관'이었으며 현재의 순현관이라는 명칭은 창학 100주년을 앞두고 2005년 2학기부터 사용됐다. 순현관 정문 앞에는 계절별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담한 연못이 있다. 연못 위 구름다리를 지나면 나오는 사거리 광장에서는 다양한 캠퍼스 행사가 열린다.



학생회관

숙명여대 제1캠퍼스의 정문 오른쪽에는 7층 건물인 학생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교내 편의시설과 동아리방, 취업 및 장학 관련 행정부서들이 모여 있어 대학 생활 내내 가장 자주 방문하게 될 곳이다.

1층에는 문구점·편의점·카페 등이 있고, 2~3층에는 학생지원센터와 경력개발처가 있다. 학생지원센터에서는 장학 및 학생 자치활동 지원을 비롯해 각종 증명서 발급과 분실 물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력개발처에서는 취업과 창업에 관한 제반 활동 지원을 받을 수 있다. 4~7층까지는 학생 자치기구가 모여 있다. 총학생회와 동아리방은 물론 공동연습실과 소규모 공연장인 섬김홀도 있어 365일 내내 활기찬 공간이다.



중앙도서관

우리대학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 중 하나인 중앙도서관은 빨간 벽돌이 인상적인 본관 건물과 지하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신한로비로 명명된 본관 1층 로비에 들어서면 한쪽 벽면을 차지하는 2층 높이의 유리 통창이 눈에 띈다. 신한로비 맞은편에는 세계 여성 문인들의 작품을 전시해놓은 세계여성문학관이 있다. 2층에는 학생들의 창의적 협업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조성된 프라임스마트플라자와 예약제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DICA 플라자 등이 있다. 5층에는 CC PLAZA와 생각마루, 상상부스, 도서관 카페 '휴' 등이 있다. 6층에는 집중열람실과 노트북열람실 등이 있으며 스마트 숙명 앱에서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하별관에는 집중열람실과 보존서고 등이 있다.



명신관



명신관

명신관은 교양 수업이 가장 많이 열리며 다양한 학과의 전공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명신'이라는 이름은 대학을 설립한 순현황귀비와 고종황제의 아들인 영친왕의 아호에서 따온 것으로 '밝고 새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명신관은 구관과 신관으로 나뉜다. 신관 1층에는 PC 실습실 6곳, 노트북 대여실, 프린터실이 있다. 지하로 내려가면 학생 식당인 '미소찬(米紹饌)'이 나온다. 구관 2층에는 '정순옥라운지'와 '3D프린팅실'이 자리 잡고 있다. 정순옥라운지에는 복사기 및 프린터가 갖추어져 있고 신발을 벗고 쉴 수 있는 마루식 휴식공간도 마련돼 있다. 3D프린팅실에는 다양한 기종의 3D프린터가 구비돼 있다.





명재관

우리대학 기숙사로 '숙명의 인재가 모이는 곳'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여대 기숙사답게 안전을 중시하며 철저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출입이 가능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총 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층부터 8층까지는 학생들의 생활공간이며, 1층에는 식당·체력단련실·열람실·세탁실 등의 편의시설이 있다. 방은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화장실·침대·책상·불박이장 등 필요 시설이 구비되어 있다. 명재관 안쪽에 특별하게 조성된 하늘뜰에서는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정영양자수박물관

국제적인 자수연구가 정영양 박사가 동아시아의 섬유 유물 800 점을 기증해 2004년에 개관했다. 정영양 관장이 직접 만든 자수 작품부터 종교 복식, 병풍, 혼례복, 황실복, 신발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의 자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관람 요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창학기념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문신미술관

세계적인 조각가 문신의 작품을 보존하고 연구하기 위해 2004년에 개관했다. 총 3개의 갤러리와 소극장에서 다양한 전시가 열린다. 관람 시간 내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다.

관람 요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창학기념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숙명의 114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우리대학 백주년기념관 1층에 자리 잡고 있다. 2011년 9월 개관했으며 1906년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여성사학인 명신여학교에서 지금의 숙명여자대학교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입구에 들어서면 볼 수 있는 태극기는 등록문화재 제468 호로 등재되어 있는 교육사적 가치가 큰 유물이다. 역사관 내부에는 교묘의 변천사와 순현황귀비가 직접 하사한 현판, 졸업앨범, 과거 전문학교 시절의 교복, 조선시대 황실 마지막 상궁이었던 한희순 상궁의 요리첩 등 숙명의 역사를 보여 주는 다양한 사료들이 있다. 관람 시간 내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으니 역사관에서 숙명의 역사를 느껴보길 바란다.

관람 요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창학기념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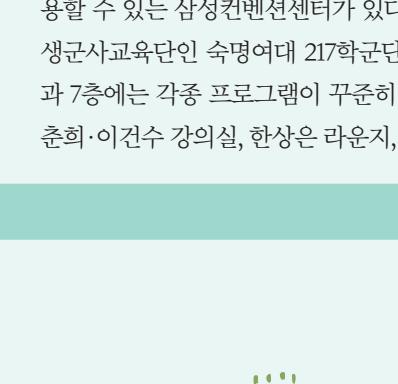


숙명역사관



백주년기념관

우리대학의 창학 100주년을 기념해 세워진 건물이다. 숙명역사관을 비롯해 다양한 규모의 컨벤션 공간이 모여 있어 연중 내내 교내외 주요행사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1층에 위치한 숙명역사관에서는 대한제국이 창학한 최초의 민족여성사학 숙명의 유구한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2층에는 복층 구조로 총 35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삼성컨벤션센터가 있다. 3~4층에는 여대 최초의 학생군사교육단인 숙명여대 217학군단 시설이 자리잡고 있다. 6층과 7층에는 각종 프로그램이 꾸준히 열리고 있는 신한은행홀, 정춘희·이건수 강의실, 한상은 라운지, 이삼봉 라운지 등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문화·예술·고고미술사학·인류학·민속학 유물을 총 8,000 여 점 소장하고 있는 종합박물관으로 1971년 개관했다. 특히 여성생활 관련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구글의 온라인 예술 작품 전시 플랫폼인 'Google Art & Culture' 모바일 앱과 웹 사이트를 통해 박물관의 소장품과 온라인 전시를 관람할 수 있으며, 숙명여자대학교박물관 홈페이지(www.sookmyung.ac.kr/sites/museum)에 들어가 '360° VR MUSEUM'을 클릭하면 박물관 내부를 360° VR(가상현실)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요일: 월~금요일(주말, 공휴일, 창학기념일 휴관)
관람 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프라임관

2019년 2월 개관한 첨단 복합 강의동으로 지하 2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6,656.42m² 규모로 지어졌다. 프라임관 지상 1층부터 3층까지는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접목된 첨단강의실과 PBL강의실, 캡스톤디자인 강의실 등 교육 공간이 들어서 있다. 로비가 있는 B1층에는 카페 스노우, PC 실습실, 피트니스 시설, 글로벌 라운지, 장애학생 라운지와 같은 학생 복지·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스타트업라운지



교내 창업보육센터 지하 2층에 총 320m² 규모로 마련된 이곳에는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학생창업 보육실, 열린 강의장 등이 갖춰져 있다. 회의 테이블을

비롯한 집기와 이동식 대형모니터, 프로젝트가 구비되어 있어 PT 발표와 시연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휴게 공간도 함께 조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스타트업 라운지에서 창업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시제품화와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창업의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창업교육뿐만 아니라 최근 각광받고 있는 메이커 운동(학습자가 곧 창작자가 되는 오픈소스 제조업 운동)을 확산시키는 우리대학만의 특화된 메이커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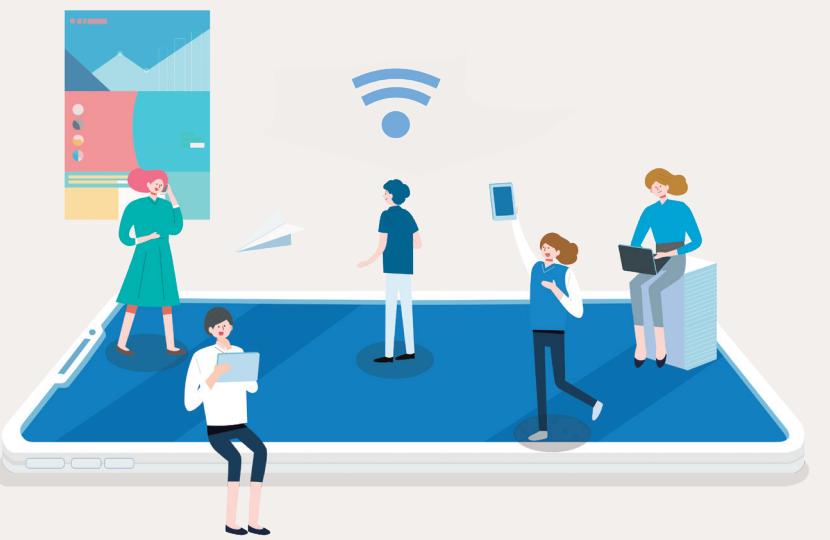


눈꽃광장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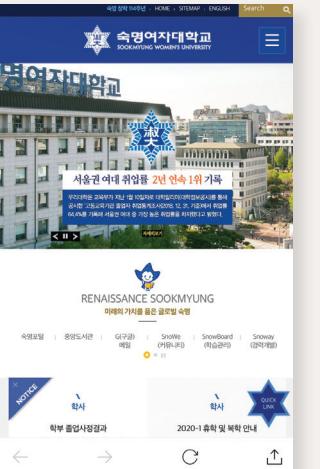
프라임관과 더불어 제2창학캠퍼스에 조성된 눈꽃광장홀은 연면적 1,922.67m² 크기의 대규모 홀이다. 이곳은 캡스톤 경진대회, 해커톤대회, 취업 박람회, 작품 전시회 등 학생들의 다양한 창의적 협력 활동을 독려하는 장이자 교내외 행사를 개최하는 컨벤션 공간으로 쓰이고 있다.

숙명을 만나는 방법

보람찬 대학생활을 위해서 구글링은 필수!?
 '댓츠 노노'. 우리대학에 관해서라면 구글보다 더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눈송이들은 알고 있나요?
 눈송이들의 알찬 대학생활과 가감 없는 소통을 위한 학교 홈페이지와 다양한 SNS 채널을 소개합니다.



01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 www.sookmyung.ac.kr



우리대학과 관련한 모든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중심! 바로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우리대학 소식과 정보는 물론 관련 웹사이트와 SNS 채널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입학정보, 학과정보, 학사정보뿐만 아니라 우리대학의 유구한 역사까지 찾을 수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접속해 보세요.

02 블로그 blog.naver.com/iamsookmyung



우리대학 블로그에서는 각종 뉴스, 수상 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명 파워> 코너에서는 재학 중이거나 이미 졸업한 동문들의 소식을, <숙명 뉴스> 코너에서는 우리대학과 내부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숙명 뉴스레터> 코너에서는 우리대학의 소식을 매달 간추려 만든 뉴스레터를 접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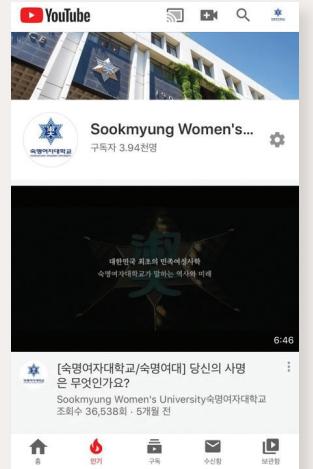
03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www.facebook.com/SookmyungUniversity
www.instagram.com/sookmyung_women.s_univ/?hl=ko



우리대학이 운영하는 공식 SNS 계정 중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각각 1만 6,000명, 1만 1,700명이 넘는 이용자가 팔로우하고 있는 인기 채널입니다. 우리대학은 두 계정을 활용해 광고, 홍보물, 각종 학생 제작 콘텐츠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팔로워들의 타임라인에는 팔로잉한 채널이 먼저 뜬다는 특성을 이용해 입시와 학교생활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SNS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팔로우 GO! GO!

04 유튜브 www.youtube.com/SookmyungUniv



우리대학 유튜브에서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우리대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숙명은 지금> 코너를 통해서는 우리대학의 각종 행사와 사업 소개를, 2019년에 새롭게 시작한 <세상을 바꾸는 숙명인> 코너를 통해서는 우리대학 졸업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이가 송이에게> 코너에서는 재학생이 신입생에게 전하는 각종 꿀팁을, <숙명 뉴스> 코너에서는 학교 내의 각종 소식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숙명 탐구생활> 코너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월간 교수님 시즌 1, 2', 온라인 영상제작 업체 딩고(Dingo)와 함께 제작한 '인생샷 스튜디오'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출연한 '캠퍼스타운' 영상 등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05 링크드인 www.linkedin.com/school/숙명여자대학교



우리대학을 해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해외 등문, 외국인 학생, 교수 등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국·영문으로 우리대학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처음 시작했음에도 팔로워가 약 9,000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눈송이가 알고 싶다



눈송이는 누구?

인적 사항

출생_ 2002년(원래 나이: 114세)

소속_ 숙명여자대학교 캐릭터

경력_ 2013년 리뉴얼



출몰지역 및 시기

★ 창학1캠퍼스 순현관 사거리와 정문 앞에도 자주 출몰한다.

★ 학교 행사가 많은 학기 초에 자주 출몰하고, 3월 해오름제와 5월 청파제에서 눈송이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특징

- ★ 숙명인을 소리 없이 내리는 눈송이의 자태로 상징화한 캐릭터다. 숙명여대 캐릭터답게 교색인 파란색을 좋아해 파란색 옷을 즐겨 입는다.
- ★ 캐릭터 몰랑이를 디자인한 윤혜지 동문의 손을 거쳐 2013년에 귀엽뽀짝한 현재 눈송이(눈송이 2.0)가 탄생했다.
- ★ 매해 우리 학교 창학기념일에 맞춰 눈송이를 사랑하는 학우들이 십시일 반으로 돈을 모아 자하철 스크린도어 광고에 눈송이의 생일을 축하해 준다.



눈송이에게 물어보자

1 숙명여대 캐릭터로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숙명여대를 더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 보시고 좋아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라 할 수 있죠.

2 눈송이가 뽑은 최고의 굿즈는 무엇인가요?

제 생각에는 눈송안마봉이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느라 지친 송이들의 모습을 보면 고생한다고 토닥토닥해 주고 싶었는데 제 얼굴 모양 안마봉이 나오게 돼서 너무 좋아요.

3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우리 만날 일이 많을 텐데 캠퍼스에서 마주치면 같이 사진 찍도록 해요~

귀엽고 깜찍한 것들이 넘쳐 나는 세상이지만 그중에서도 학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귀요미가 있다.

바로 우리대학 공식 캐릭터인 눈송이다. 눈송템 굿즈 열풍을 몰고와 애교심이라는 것을 폭발하게 만든 주인공인 눈송이를 만나 보자.



눈송템이 갖고 싶다

눈송템이란?

눈송이를 활용한 굿즈를 가리키는 말이다.

학우들의 수집욕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아이템이 수두룩하다.



눈송템 활용법

- ★ 상업적 용도가 아닌 공동구매 목적으로 눈송이 캐릭터를 이용할 수 있다. 학우들은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눈송이 굿즈를 공동구매해 사용하기도 한다.
- ★ 당신이 눈송이가 직접 되고 싶다고? 눈송이 탈 대여는 커뮤니케이션팀(02-710-9065~9068)에 문의하면 된다.
- ★ 눈송이 활용 일러스트 파일을 다운받고 싶다면? 숙명여대 홈페이지 '숙명 상장'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 ★ 스노우브릿지 2층이나 제2창학캠퍼스 미술대학 3층 '숙명아이'에 가면 눈송이를 활용한 다양한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

숙명통신원이 뽑은 베스트 눈송이 공동구매 Top 2

1위

눈송이 그립톡
굿즈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아이템으로 2019년 겨울 시즌에 처음 나온 눈송이 그립톡이다. 편리하고 완벽한 그립톡을 원하면? 책 읽는 눈송이와 야영하는 눈송이를 만나 보고 싶다면? 눈송이 그립톡을 적극 추천!

2위

눈송이 얼굴 키링
눈송이 미니미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되어 학우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세상 귀여움이 아닌 눈송이 키링을 가방에 달고 다니면 지나갈 때마다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

1위

눈송이 배지
공동구매 아이템 중 가장 종류가 많고 학우들의 사랑도 많이 받은 굿즈는 바로 눈송이 배지다. 배지만 모으는 컬렉터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인기 폭발이다. 학과별 눈송이, 순현황귀비 눈송이, 그리스 로마 신화 눈송이 등이 배지로 제작되었다.

2위

눈송이 모찌 인형
눈송이 모찌 인형은 1차 공동구매 이후 큰 사랑을 받아 2차까지 제작되었다. 인형을 껴안고 순현관 사거리를 지나면 학우들이 귀엽다고 웅성웅성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굿즈다.



눈송이가 PICK한



학교 앞 맛집들



대학생이 되면 수강 신청, 과제 제출, 동아리 가입 등 제때에 해야 할 일이 참 많다. 하지만 제때를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뭐니 뭐니 해도 점심시간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우리대학 앞에는 안 간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맛집들이 꽤 있다. 그럼에도 점심시간이 빠듯해 교문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눈송이들을 위해 시간별 학교 앞 맛집을 소개한다.

30분 이내

주어진 시간은 단 30분. 골목까지 내려갈 시간도 없다. 정문 앞에서 빠르게 점심을 해결해야 할 때!

달볶이

달볶이(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종류에 상관없이 1인분 가격이 3,000원이고 양도 푸짐해서 가성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1인당 1인분 주문 시 달볶이가 무한리필된다 는 엄청난 사실! 혼자 갔을 때는 달볶이를 1인분의 반만 시키고 다른 메뉴를 곁들일 수 있는 혼밥 메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대표 메뉴
달볶이, 순대, 꼬마김밥(각각 3,000원)

아리랑

다양한 메뉴의 컵밥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유명한 메뉴는 연어컵밥과 참치를 추가한 두부추컵밥이다. 최근에는 묵은지참치컵밥과 계란두부컵밥이 새로 생겼다. 주문하면 거의 바로 나오기 때문에 빠른 식사가 가능하다.



• 대표 메뉴
연어컵밥(4,200원), 두부추컵밥(3,800원)

1시간 이내

다음 수업까지 1시간 남았다. 학교 앞 골목으로 발걸음을 가볍게 옮긴 다음 입맛을 당기는 메뉴를 파는 맛집으로 가자.

선다래

학교 정문 바로 앞에 있어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공강 때도 들르기 좋은 곳이다. SBS의 <백종원의 3대천왕>에도 출연한 맛집으로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가 제일 유명하다. 떡볶이 외에도 김치볶음밥, 비프 오므라이스, 졸순(쫄면이 들어간 순두부찌개)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 고르는 재미가 쏠쏠하다.



• 대표 메뉴
매운 까르보나라 떡볶이(6,000원), 졸순(5,500원), 비프 오므라이스(5,500원)

포36거리

'포돈정식'으로 유명한 쌀국수집 포36거리. 점심시간에는 줄을 길게 서 있으므로 강의실에서 빨리 나오지 않으면 자리 잡기 힘든 곳이다. 뜨끈한 양지 쌀국수와 함께 히레가스 한 줄이 같이 나오는 포돈정식은 청파동에 온다면 꼭 먹어 봐야 할 음식이다. 우리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나 항상 대기 줄이 길어 1시간 이상의 시간을 잡아야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 있다.



• 대표 메뉴
포돈정식(8,500원)

음식미담

대표 메뉴는 갈릭치즈김치볶음밥이다. 이름이 길지만 이름만큼 맛도 있다. 김치볶음밥 위로 길게 늘어지는 치즈와 은은하게 나는 마늘 향이 입맛을 자극한다. 토핑으로 돈가스, 치킨 텐더, 소시지를 직접 고를 수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해서 먹으면 좋다.



• 대표 메뉴
갈릭치즈김치볶음밥(6,000원)

또와또

콩나물불고기와 떡볶이를 먹을 수 있는 맛집이다. 콩나물불고기를 먹을 때 수제 김말이랑 라면사리를 추가해 먹으면 더 꿀맛이다. 콩불을 다 먹고 나서는 꼭 마약볶음밥을 먹어야 한다. 볶음밥을 먹기 위해 콩불을 먹을 정도이기에 볶음밥은 꼭 먹고 나오기!



• 대표 메뉴
또와떡불(5,500원), 마약볶음밥(2,000원)

1~2시간 이내

학교 앞 골목 맛집을 이리저리 누빌 수 있는 우주공강이 도래했다.

이럴 때는 맛집이 제아무리 골목 깊숙이 있더라도 배부른 한 끼를 아무지게 쟁겨 먹을 수 있다.

고수찜닭

화끈한 쇼킹, 매콤달콤. 순한 맛 총 3가지 중 원하는 맛으로 선택 가능한 고수찜닭. 조금 더 맛있게 먹고 싶다면 치즈를 추가하면 된다. 맛있는 짬닭을 먹고 나서 밥과 김을 남은 소스에 비벼 먹으면 '완벽한 마무리'!



• 대표 메뉴
반 마리(18,000원), 한 마리(27,000원), 치즈 토피(2,000~4,000원)

신마이

맛집 인스타그램으로 핫한 푸드코에도 소개된 쌀국수집이다. 유명한 메뉴는 닭반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닭반마리 쌀국수다. 친절한 사장님과 세숫대야만 한 그릇에 가득 담긴 쌀국수 양에 두 번 놀라운 맛집이다.



• 대표 메뉴
닭반마리 쌀국수(5,900원)

와우 신내떡

신이 내린 떡볶이의 줄임말로, 정말 신이 내린 떡볶이 맛을 느낄 수 있다. 점심시간에 가장 인기있는 메뉴는 홀릭런치세트다. 떡볶이, 주먹밥, 음료, 갈릭후라이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기에 많은 송이들이 찾는다. 신내떡은 떡볶이도 유명하지만 갈릭후라이가 정말 맛있기 때문에 꼭 한번은 들러야 할 맛집이다. 떡볶이 한입에 갈릭후라이 한입이면 A+ 성적도 부럽지 않아….



• 대표 메뉴
홀릭런치세트 갈릭후라이(10,500원), 와우떡볶이(2,900원), 갈릭후라이(3,900원)

마시앤바시

친구들과 분위기 있는 곳에서 식사하고 싶을 때 가는 맛집이다. 맛집으로 소문나서 멀리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대기 줄이 아주 길다는 사실을 꼭 알고 가야 한다. 새콤 달콤한 소스와 부드러운 살코기가 찰떡궁합을 이루는 차이나치킨은 마시앤바시에서 가장 맛있기로 소문난 메뉴 중에 하나다. 식당 내부 분위기도 좋아서 인기가 더욱 많은 맛집이다.



• 대표 메뉴
차이나치킨(17,000원), 시금치크림파스타 (12,000원), 백김치크림파스타 (12,000원)

숙명인을 위한 특별 서비스



즐겁고 알찬 캠퍸스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면 좋은 학교 시설과 시스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학생지원센터

다양한 정기행사와 학생활동을 총괄하며 학자금 대출과 교내외 장학금 제도를 안내하는 곳이다. 장학금 지급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공해주므로 학생 개인의 여건에 따라 맞는 장학금을 찾아서 신청하길 추천한다. 또한 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내에서 습득된 분실물을 맡아 주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주인을 찾기 어려운 물건을 주웠다면 학생회관 305호에 위치한 학생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문의 02-710-9810, 9815



숙명행복상담센터

숙명인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대학 생활을 돋는 심리상담 기관이다. 학업 및 진로, 대인관계, 성격, 정서, 행동, 가치관 정립에서 겪는 어려움 등 대학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졸업 후의 진로가 걱정되거나 우울과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 후 간단한 면접과 심리검사를 거치면 예약 후 상담이 가능하다.

• 문의 02-710-9175



성평등상담소

성희롱,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책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폭력예방 교육 및 성평등문화제 활동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평등한 캠퍼스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이 외에도 성폭력·성희롱 피해 접수 및 사건처리 지원, 성의식 실태조사연구, 성평등에 관련 도서대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문의 02-710-9021, 9873



인권상담소

교내외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는 인권 기구로 다양한 인권 관련 행사와 강연회 등의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전 신청을 하면 인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은 물론 인권 침해 예방과 인권 의식 증진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친다.

• 문의 02-2077-7507



스노웨이(SNOWAY)

입학부터 졸업까지 재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역량 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경력개발 포털시스템이다. 학생들을 위해 각종 비교과 프로그램과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자기주도적 성장역량, 창의적 문제해결 역량, 협력적 소통역량, 글로벌 시민역량의 4가지 핵심역량으로 구분해 제공한다. 국내 최대 인재 채용 사이트인 잡코리아, 사람인과 연계해 취업 상담회, 현장 설명회, 현장 면접, 추천 채용 정보 등 최신 취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 홈페이지 <http://snoway.sookmyung.ac.kr>



스노위(SnoWe)

우리 대학의 다양한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교내 커뮤니티다. 교내 채용공고 및 모집요강, 인턴십, 멘토링, 행사 정보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우들과 물건을 사고팔 수 있는 청파장터, 스터디 모집, 과외, 아르바이트, 하숙 공고 등을 위한 다양한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다. 대학생 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 홈페이지 <http://snewe.sookmyung.ac.kr>